

올려 퍼져라! 창조적 생명의 개가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11년 1월 26일

끊임없는 '인간혁명'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계를!

유대를 맺는 '대화' 부흥이 급선무

21세기 '제2의 10년'이 개막하는 해에 즈음해 제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확대되는 '무연사회'

지난해는 고령사회를 맞은 현대의 일본을 상징하는 듯한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사라진 고령자'¹ 사건인데, 도쿄 아다치구 111세 남성의 사례가 발단이 되어 조사를 해보니 본디 축복받아야 마땅한 100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행방불명 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잇달아 판명되었습니다.

공적인 기록상으로는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사 여부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은, 유족이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연금을 부정 지급한 사례마저 더해져 장수사회 일본의 예기치 못한

¹ 사라진 고령자

도쿄 아다치구에서 2010년 7월, 호적상으로는 111세로 생존하는 남성의 사체가 발견되었는데 그 후 조사에서 이 남성은 이미 3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지자체가 고령자의 생사(生死)를 확인한 결과, 주민표와 호적에는 남아 있어도 이미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이 된 경우가 다수 있다는 사실이 각지에서 밝혀져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허점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사막화(砂漠化)되었다고나 할까 액상화(液狀化)되었다고나 할까, '무연사회(無緣社會)'라는 평도 있듯이 어쨌든 공공 얼어붙은 듯 황량하게 느껴지는 심상(心象)풍경입니다. 불교의 '연기론(緣起論)'이 가르치듯 대체로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환경 이른바 '결연(結緣)'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구조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통감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역과 유대관계가 희박해지고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고립감이 깊어지며 장래를 비관하는 젊은 세대나 중노년층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무연'은 '불완전한 의사소통'을 일컫기도 합니다. '무연사회'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가장 강하고 좋은 무기인 말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능부전(機能不全)에 빠진 사회입니다. 그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상황이나 핵가족화를 비롯해 많은 문제가 잠재해 있지만, 정보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한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정보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즉 증대하는 정보량과 모순된 말의 공동화(空洞化), 본디 지닌 무게나 깊이를 잃고 떠다니는 부호와 같은 말의 경량화(輕量化), 그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대화력의 쇠퇴입니다.

철학자 알베르 자칼은 정보과학의 의의를 과부족 없이 평가한 다음 "정보과학은 ... 급속냉동 된 의사소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침묵과 말로 이루어진 진정한 대화에서는 창조성을 동반한 놀라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정보과학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급속냉동'은 참으로 절묘한 표현입니다.

물론 정보과학의 발달이 어떤 관점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맺는 새로운 유대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보과학을 매개로 한 유대관계가 '익명성' '비인칭성'을 특징으로 앞세우게 되면 '얼굴'이 사라지고 맙니다. 즉 우유적(偶有的)이고 불분명하며, 얼굴과 얼굴 그리고 혼과 혼의 촉발작용에서만 생기는 신선한 놀라움이라든지 육감을 동반하는 반응이나 충족감과 거리가 먼 세계입니다.

이런 시대적 풍조에서 특필하고 싶은 점은 우리 SGI가 세계적으로 전개하는 불법(佛法)대화 특히 좌담회운동이 지닌 정신사적 의의입니다. SGI가 날마다 몇천 곳, 몇만 곳 아니 몇십만 곳에서 실행하는 '얼굴'을 서로 맞댄 쌍방향의 대화는 참으로 '침묵과 말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대화'입니다.

우리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으면 기쁨과 충족을 느끼며 그렇지 않으면 당혹하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고투하며 침묵 속에서 열심히 새로운 말을 찾고, 그 말이 가까스로 상

대방에게 닿으면 한층 더 큰 충격을 느낍니다. 이렇게 끈기 있는 대화가 엮어내는 그라데이션(서서히 변화하는 것)은 마음과 혼을 단련하는 '용광로'입니다. '급속냉동'된 '의사소통'과 정반대인 양성(釀成)과 연성(鍊成)의 장입니다.

그러한 '말의 바다' '대화의 바다' 속에서만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점을 회피하면 소크라테스가 '논의를 싫어하는 일'(미소로고스)은 '인간을 싫어하는 일'(미산토로포스)과 통한다고 말했듯이 참된 인간으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존듀이협회 래리 히크먼 전(前) 회장은 저와 나눈 대담에서 SGI 멤버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거점을 '지역사회와 깊은 유대를 맺는 시설'이며 성숙한 시민의 요람이자 듀이가 언급한 '공중(公衆)'을 낳는 모체라고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우리 SGI가 추진하는 대화운동은 착실하지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공동화된 말을 소생시키는 문명사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긍지로 삼았으면 합니다.

말의 경량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말의 공동화, 경량화라고 하면 지난해 '하버드의 열띤 강의실'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하버드대학교는 미국 최고봉의 학부인데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치철학 강의를 인기를 끌어 역사상 가장 많은 수강생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의라고 해도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화제를 선택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즉 쌍방향으로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문제의 옳고 그름을 음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참으로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방불케 하는 강의로 일본에서도 크게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몇 번이나 소개했으며 샌델 교수가 직접 일본을 방문해 일본판 '열띤 강의실' 등을 시도했습니다. 또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 분야의 책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화제를 접하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제언에서도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서두에서 미리엘 주교와 죽음을 앞둔 자코뱅당원(과격한 혁명주의자)이 '정의'를 둘러싸고 상반된 견해로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언급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예로부터 난문(難問) 중의 난문임을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난문은 안이하고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문제이며, 만일 그 점을 등한시하면 정의와 정의가 서로 부딪히고 도처에서 헐레이션을 일으키며 정의라는 말의 공동화와 경량화 그리고 인플레이현상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20세기가 전쟁과 혁명으로 말미암은 살육의 시대가 된 커다란 원인은 이런 정의의 인플레이현상이 아니었을까요. '열띤 강의실'과 같은 시도가 붐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그런 점에 대한 자성(自省)과 자계(自戒)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러면 제가 젊은 시절에 애독한 앙리 베르그송의 철학을 원용(援用)하며 우리 SGI가 표방하는 인간주의 사상을 조금 더 깊고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아마 베르그송만큼 말의 인플레이현상과 가벼움 바꾸어 말하면 언어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파헤친 사람도,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라는 철학자가 명저 《앙리 베르그송》에서 “머리로 걷고 있던 철학을 본디 모습으로 돌려놓았다”라고 정확히 평한 것처럼 로고스(언어나 논리) 중심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편향적인 서양철학에 선구적이고도 포괄적으로 경종을 울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을 위한 철학'이라는 주축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르그송 철학이 그런 학문적 견지를 이끌어냈다고 믿습니다.

저는 베르그송이라고 하면 1947년 여름에 있었던 그리운 추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열아홉 살이던 저는 우인이 창가학회 회합에 참석을 권유하며 생명철학을 공부한다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베르그송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회합에서 저와 은사(도다 조세이 창가학회 제2대 회장)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르그송은 먼저 철학을 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생물학의 “사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이라며, 베르그송 철학의 모티베이션(동기부여)을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 문제들은 참으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 가지 철학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철학을 한다면 당장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동기부여는 인간이 좋은 삶을 추구하는 한, 누구나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직면하지 않을 수 없

으며 만인이 공유하는 원초적 물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철학체계'는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부분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칫하면 근간을 이루는 이 원초적 물음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참으로 불교에서 설하는 '독화살의 비유'²라는 훈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즉 베르그송은 늘 '무엇을 위한 철학인가'라는 인간주의적 견지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과학이나 종교를 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의 즉흥시

저는 그 회합에서 은사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감동을 즉흥시로 읊었습니다.

나그네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 하는가

달은 지고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는데

동트기 전의 혼돈에

빛을 찾아

나는 나아간다

² 독화살의 비유

관념적인 논의에 빠지는 제자를 훈계하기 위해 석존이 설한 비유다. “독화살을 맞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화살을 쏘았는지 화살이 어떤 재질인지 밝혀지기 전에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는 비유를 들어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는 현실의 행동이 불교의 본의라는 점을 깨닫게 했다.

마음의 먹구름을 걷어 버리려고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 거목을 찾아

나 땅에서 솟아오르려 하는가

지금 돌아해보면 불가사의하게 부합됩니다. 그때 저는 베르그송을 엄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인간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초적 물음으로 늘 피드백(환원)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철학 답지 않은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르그송 철학에 상상 이상으로 친근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종교관 등에 초점을 맞춰보면 베르그송이 의도한 바를 초월해(왜냐하면 여기서는 상세히 논하지 않겠지만, 베르그송은 불교 특히 대승불교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우리만큼 불법을 기조로 한 인간주의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우리 SGI가 제창하는 인간주의는 불법을 기조로 하기에 “법(法)에 의하되 사람에게 의하지 말지어다”(열반경)를 규범으로 삼지만, 불전(佛典)에 “법은 스스로 홍통(弘通)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홍통하는 고로 인법(人法)이 함께 존귀하니라”(어서 856쪽)고 씌어 있는 것처럼 화도(化導)하고 유통(流通)하는 측면에서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중심축에 둡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해도 고정적이지 않으며 ‘사람’이 체득하고 체현해야 비로소 현실에서 생생히 맥동하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서 계승’이 상징하는 고매한 정신을 전파하는 드라마

‘인격적 인간’으로 비약을 촉구하는 사상

마찬가지로 베르그송의 시간관과 생명관은 ‘사람’에 즉응한 ‘운동’으로 파악하는 다이너미즘(역본설)입니다. 이 다이너미즘을 주요 저서에 따라 말하면, 어느 때는 ‘순수지속’(<<시간과 자유>>)이고, 어느 때는 ‘긴장’(<<물질과 기억>>)이고, 어느 때는 ‘생명의 비약(엘랑 비탈)’(<<창조적 진화>>)이고, 최후의 저서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는 ‘동적(動的) 종교’의 ‘사랑의 약동(엘랑 다무르)’에 도달합니다. ‘엘랑 비탈’까지는 이른바 ‘생물적 인간’의 진화를 쫓지만, ‘엘랑 다무르’에서는 ‘인격적 인

간'으로 상승하고 비약해 일종의 신비적 체험으로 촉발된 체현자로서 비로소 폐쇄된 세계에서 인류사회와 인류애를 향해 비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비적 체험은 미신적이거나 수상적인 것과 완전히 거리가 멀고, 지력(知力)을 총동원한 끝에 작동하며 게다가 '수많은 장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성을 앞쪽으로 내모는 힘'을 가리키는 정서이며 혼의 '깊은 부분이 울려서 흔들리는' 정서를 일컫습니다.

베르그송은 그 체현자를 종교적 창조자라고도 도덕적 영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정신계의 거인은 "자신이 충실하게 행동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충실히 행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이 고매(高邁)하게 행동할 뿐 아니라 고매라는 아궁이에 불을 붙여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여 인류를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는 일이다. 이 목적은 이론상으로 근원에 존재하리라고 여기던 것, 즉 신(神)적인 인간성이 마침내 존재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매력적이고 자력(磁力)을 간직한 (인도하는 사람의) 혼이 '부름'이 되어 (뒤를 잇는 사람들의) 정신적 '동경'을 끌어당겨 서로 호응하며 새로운 정신적 지평이 활연히 열립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간디의 출현이 오랜 세월 이어진 식민지 지배하에 위축된 인도사람들의 마음에서 '거무죽죽한 공포의 갑옷'을 벗겨내고 '민중의 마음 자세를 완전히 뒤바꿨다'라고 네루가 평했듯이, 종교든 사상이든 정신성을 전파하고 계승하는 일은 이렇게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궁극적인 모습을 상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계는 은사 도다 제2대 회장이 참으로 이런 정신적 거인이며 둘도 없는 사표(師表)였습니다. 은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투옥되었는데 그곳에서 '부처는 생명이 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례없는 옥중 체험을 베르그송이 말하는 '창조적 약동력(엘랑 크레아토르)'으로 삼아 불법유포(佛法流布)를 위해 생애를 바쳤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재산이자 금지는 그런 희유의 스승을 만나서 섬기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제(師弟)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또 그 전파와 계승을 확신하기 때문에 평생의 사업인 소설 《인간혁명》의 주제를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이룩고 한 나라의 숙명전환도 이루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전환도 가능케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언어의 고정화가 초래하는 정신의 나태

그런데 베르그송은 말의 인플레이션상과 가벼움을 낳는 말에 대한 과신(過信)과 경신(輕信)에 대해 경계심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적(內的) 생활에서 비로소 경험의 영역을 발견한 후에 말로 해결하는 일을 내던져 버렸을 때 진정한 철학적 방법에 눈을 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뜻밖에도 용수(龍樹)가 연기(緣起)라는 법리를 “말의 허구를 초월해 더없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듯이 불교 본디의 ‘무기(無記)’라는 지견과 언어관을 떠오르게 합니다.

베르그송이 경계심을 드러낸 까닭은 바로 그에게 ‘경험의 영역’, 즉 진정한 현실인 실재(實在)는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 오히려 움직임 그 자체”이며 창조적 생명의 끊임없는 변화와 연속되는 변화의 흐름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움직임을 감지하려면 베르그송에 통달하고자도 생전에 된 적이 있는 고바야시 히데오 씨가 말한 “미지(未知)의 사물과 충돌하고 기지(既知)의 말을 경계”하며 올바른 말을 선택하는 ‘정신의 탄성(彈性)’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때때로 그러한 끊임없는 흐름을 단절하고 언어로 고정화시키며 “변화에 대한 스냅사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실재 그 자체와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른바 ‘시간의 공간화’이며, 베르그송은 상징적인 사례로 “날아가는 화살은 멈춰 있다.” 또는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말한 고대 그리스 철인 제논의 역설³을 집요하게 논하며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따른 고정화가 초래하는 과신과 경신은 결국 정신의 이완상태, 즉 지적 나태, 고정관념이나 편견, 도그마(교조)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논한 정의의 인플레이션상 (이데올로기에서든 종교에서든 민족주의에서든) 등은 그 전형적인 증세의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인간에게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결론을 얻으려는 안이함을 비롯해 약함이나 게으른 마음이 들게 하고 맙니다.

³ 제논의 역설

변증법의 창시자로 불리는 제논은 날아가는 화살도 순간순간의 모습을 포착하면 각각 공간의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며 정지해 있다고 역설했다. 또 거북이보다 1000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가 느리므로 아킬레스보다 1000미터 앞에서 출발했다.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출발한 지점까지 오면 그 동안 거북이는 1미터 앞으로 나아가 있을 것이고, 또 1미터를 아킬레스가 따라잡으면 그 동안 거북이는 1/1000미터 앞에 가 있듯이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는 순간, 거북이는 항상 앞서 가기 때문에 영원히 따라잡지 못한다는 퀴변을 전개했다.

오래 전에 저는 그 위험성을 지적하며 “세간의 주의주장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틀에 맞춘다’는 작용이 수반된다. 불법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주장은 이 정형화에는 무게를 두지 않는다. 시대와 상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관찰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형화’는 ‘고정화’ ‘공간화’라는 말과 뜻이 거의 같습니다.

안일이나 정체를 배제한다

즉 불법적 발상 뒤에 바싹 따르는 듯한 베르그송의 철학 아니 베르그송의 기질은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약함이나 게으른 마음과 정반대로 대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긴장, 집중, 이것이 바로 내가 새로운 문제 하나하나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신적으로 요구되는 방법의 특징을 일컫는 말이다.” “나는 안이함을 배척한다. 나는 어려움을 야기하는 듯한 일종의 사고방식을 권장한다. 나는 무엇보다 노력을 존중한다”라고 말하는 등 안일이나 정체를 물리치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좋은 삶과 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능동적인 의욕을 고무해 마지않습니다.

긴장, 집중, 노력이라는 마음의 활기는 ‘운동’을 감지하고 사고(思考)의 경직화를 배제하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와 상황의 실질적 파악’을 가능케 하기 위한, 말하자면 정신적인 ‘동체시력(動體視力)’을 배양하고 단련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베르그송은 이 ‘활기’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지적 건강’이라고 하며 “행동에 대한 열의, 환경에 적응하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 유연함과 결부된 참고 견디는 마음, 가능과 불가능을 구별하는 예언자의 식별력, 분규 사태를 간단히 극복하는 정신 등”이라고 절묘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제가 지난해 제언에서 간결하지만 강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불전(佛典)에 나오는 ‘강한 마음’ ‘장부(丈夫)의 마음’과 깊은 부분에서 공명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타 함께 기쁨을 창조하는 보살도

‘강한 마음’ ‘장부의 마음’에 한계는 없습니다.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주의의 진수는 인간의 정신이 지닌 온갖 힘을 최대한 행사하도록 더 정확히 말하면 무한히 행사하도록 요청하며,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우스트로 상징되는 이른바 욕망이 비대화된 근대인의 오만함과 비슷한 것 같으나 사실은 다릅니다. 우주 근원의 법에 귀의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생기는 자각이고 자부심이며 긍지입니다. 왜 자각이고 긍지인가 하면 불교에서는 종교가 인간의 정신적 기동을 이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게다가 “정신활동이 종교를 포함하는 것이지 종교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간을 위한 종교’임을 스스로 엄하게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바로 ‘인간을 위한 종교’와 ‘종교를 위한 인간’을 나누는 분수령이 있고, 그것을 잘못 인식하면 종교는 인간의 약함과 추함 그리고 어리석음과 게으른 마음을 유발하는 ‘기복 신앙’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그와 달리 우리 SGI 신앙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도전을 촉구하고 고무하는 참된 ‘인간을 위한 종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이 지닌 온갖 힘을 행사하는 데 중착점은 없습니다. ‘지금’은 늘 다음 단계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자, 지금부터다!”라는 부르짖음은 인간주의를 몸소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기상나팔’입니다. 그것은 현실사회의 서민들 속에서 ‘자타 함께 기쁨’을 창조하는 보살도로 전전(展轉)합니다.

불법을 바탕으로 한 인간주의라는 희망 철학은, 인간의 힘을 무한히 행사해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하려는 데서 무한한 힘, 무한한 희망, 무한한 용기, 무한한 지혜 등 양양한 전도가 열리고, 아무리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어도 끊임없이 전진하는 용자의 앞날에는 불전에 씌어 있는 “환희 중의 대화희”(아서 788쪽)라는 창조적 생명의 개가가 기다린다고 가르칩니다.

베르그송의 옵티미즘(낙천주의), 즉 철인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최선관(最善觀=옵티미즘)”이라고 달관한 일도 불법의 무한성과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자기 완성의 왕도

베르그송은 “사람은 노력하면 자기가 지닌 것보다 더한 힘을 내면에서 끌어내어 자신보다 더 높

이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정신의 힘이 지닌 가능성과 개연성을 놀라울 정도로 기대하고 높이 평가한 까닭은 정신세계의 무한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는 또 그러한 노력은 이윽고 ‘환희’에 도달하며 “환희는 늘 생명이 성공한 일과 지반을 확보한 일 그리고 승리한 일을 알립니다. 그리하여 큰 환희에는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환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창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가 풍부할수록 환희는 큼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무한성을 지향하며 예로부터 인간에게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시켜 종교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하는 ‘죽음’이라는 최대의 아포리아(난문)에도 대담하고도 신중하게 도전합니다.

여기서 대담하다고 표현한 까닭은 “우리가 내세는 있다고 의식한다면 그것을 탐구하는 수단을 발견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라는 베르그송의 견지가 신이 사후 세계를 감독한다는 기독교적 전통과 이질적이기 때문이며, 장켈레비치가 ‘인간의 신격화’라고 이름 붙인 정신이 지닌 힘의 무한성을 증명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베르그송은 특수한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그러한 정신의 무한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인의 선도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왕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인간이 어느 때라도 추구할 수 있는 창조에 인간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며 “그 창조는 자기가 자기를 창조하는 일을 일컬으며 즉 적은 것에서 많은 것을 끌어내고 무(無)에서 무엇인가를 끌어내며 세계 속에 있는 풍요로움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노력으로 인격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불교가 “일체중생 개성불도(皆成佛道)”(어서 557쪽)라고 설하는 자기완성을 위한 평등대혜(平等大慧)의 길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까요.

도그마(독단)가 놓은 덫을 철저히 제거한다

그렇더라도 베르그송이 무한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인신(人神)’(도스토예프스키)의 오만함과 대조적으로 어디까지나 신증을 기하는 경험주의자적 방식입니다. 이른바 “만일 영혼의 문제가 정말로 있다면 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논해야 한다.” “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경험을 바탕으로 전

진적(前進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게다가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 얻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방식입니다.

이는 ‘문증(文證), 이증(理證), 현증(現證)’이라는 경험 세계의 ‘증거’를 중시하는 불교 법리와 일맥상통해, 저는 탁월한 수학자이기도 한 은사가 생전에 “과학이 진보할수록 불법(佛法) 법리의 올바름이 증명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베르그송은 완벽하지 않지만 생명의 영원성을 감지하면서도 온갖 도그마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법에서는 ‘금세’와 ‘내세’, ‘현세’와 ‘생(生)과 그 전, 사(死)와 그 후’를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의 무한한 연속으로 파악하는 접근법을 “기(起)는 이는 법성(法性)의 기, 멸(滅)은 이는 법성의 멸”이라고 설합니다. 기는 생, 출현이라고 하고, 멸은 사, 소멸이라고 해도 법성이라는 생명의 본체가 연(緣)을 만나 생멸유전(生滅流轉)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연했을 때(1993년 9월, ‘21세기 문명과 대승불교’), 이 법리를 바탕으로 ‘생도 환희, 사도 환희’ ‘생도 유락, 사도 유락’이라는 불법의 생사관을 주장해 많은 사람에게 찬동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베르그송의 낙천주의와 생명관에 강한 친근감을 느끼며 게다가 종교가 도그마의 ‘덧’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러한 경험주의적 접근법과의 대화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아놀드 J. 토인비 박사와 나눈 대담에서도 통감한 부분입니다.

열린 종교를 지향한 정신성

정신이 지닌 힘의 무한성을 믿고 추구하는 베르그송의 낙천주의는 필연적으로 인류애에 이르는 열린 혼, 열린 사회, 열린 도덕, 열린 종교(동적<動的> 종교)를 지향합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점은 현대의 정신세계가 베르그송의 세계와 정반대로 폐쇄적 정신공간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폐시미스틱(비관주의적) 하고 폐쇄적 공간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인간의 혼은 “자신보다 더 높이 자신을 끌어올리는”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암운이 드리워진 속에서 한없이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그런 상황에서 번민하는 신음을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대의 풍조와 대조적으로 베르그송이 지향하는 바가 각별히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베르그송의 낙천주의는 정체에 빠져 해도(海圖)도 없이 항해하는 근대문명을 크게 궤도 수정하는 ‘방향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또한 인간주의를 표방하는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지향성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인간의 자각과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베르그송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인류는 지금 자신이 이룩한 진보의 중압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게다가 인류의 미래가 오직 인류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앞으로도 삶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인류에게 있다. 또 인류는 단순히 삶을 지속하기만 해도 좋은지 아니면 반항적인 우리의 지구에서까지 신들을 만드는 기구(머신)라고 할 수 있는 우주가 본디 다해야 할 본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문하는 일도 바로 인류의 책임이다.”

“신들을 만드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우주가 본디 다해야 할 본분을 달성한다.”는 말은 수수께끼처럼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진화과정에서 인간에게만 허용된 창조적 생명의 완전한 개화, 즉 '신비적' 체험으로 혼이 뒤흔들린 정신적 거인에게 촉발되고 선도되어 '근본적으로 탈바꿈한' 사람들이 인류애라는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의 악동'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한사람 한사람의 자각과 책임이 시대를 변혁하는 파동을 낳는다

SGI 운동이 지향하는 역사적 지평

제가 모스크바대학교 빅토르 A. 사도브니치 총장과 엮은 대담집(제1집)을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세계를》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도 '새로운 인류가 만드는 새로운 세계'를 구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역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게다가 사회기구나 조직의 일원으로 왜소해지고 의기소침한 인간이 아니라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자유의지가 촉구하는 대로 한결같이 자기를 확대하는 창조적 인간이 주역에 적합한 인간입니다.

그 밖의 조직이나 제도 그리고 체제 등의 외적요인에만 사로잡히면 가장 중요한 인간이 단역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그것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는 20세기가 남긴 쓰디쓴 교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지속할 의지는 있는가! 단순히 삶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살려는 의지는 있는가!”라는 인류를 향한 철인의 외침은 “인간 개개인의 정신을 진정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사회도 갱신되지 않는다.” “인간 개개인에게 자신의 혼을 구제하는 일이 바로 세계를 구제하는 일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현인의 말과 호응하며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고대하는 듯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불법(佛法)을 바탕으로 한 인간주의 운동은 이러한 철인과 현인이 제시한 정도(正道)를 걸으며 실질적으로 불교 역사상에 빛나는 세계적인 확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도 착실하게 수량을 늘려갈 SGI 운동은 문명을 전환하는 ‘방향키’로서 때와 함께 반드시 빛을 발하며 주목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민중의 강력한 연대’로 ‘생명존엄의 세기’를 건설

이어서 같은 지구에 사는 우리가 ‘공통된 미래’를 위해 다루어야 할 과제를 인간의 무한한 창조성에 비추어 논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제1의 10년이 끝나고 드디어 제2의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냉전이 종결된 이후, 경제를 축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환경파괴와 빈곤을 비롯한 지구적 문제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적 대응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부터 근년의 금융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격심하게 뒤흔든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정체되는 것은 물론 후퇴마저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예가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목표’⁴를 둘러싼 상황이었지요.

세계적으로 해마다 800만명 이상이 극심한 빈곤으로 괴로워하며 목숨을 잃고,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생명과 존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⁴ 밀레니엄 개발목표

유엔이 2000년 9월 채택한 ‘유엔밀레니엄선언’ 등을 토대로 정리한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말한다. 2015년까지 극빈과 기아 퇴치를 비롯해 초등교육 완전보급, 남녀평등 촉진과 여권신장,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의 건강개선 등 8개 분야 18개 항목 달성을 목표로 한다.

21세기 개막에 즈음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내걸었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된 영향도 있어 지원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절대 빈곤층을 반으로 줄이자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목표를 2015년으로 정한 기한까지 달성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멕시코에서 2010년 12월에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013년 이후의 온실효과가스 감축 방안을 정하지 못한 채 논의가 미루어졌습니다.

위협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모든 상황이 불가피한 과제로서 경종을 울리는데도 좀처럼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배경에는 어떤 점이 있는가.

생각건대 위협을 지적해도 자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교섭할 경우 술선해서 행동하거나 다른 나라와 연대해 대책을 추진하려는 기운이 쉽사리 고조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때때로 뒷전으로 밀리는 지원과 대책이 본디 많은 사람에게는 생명줄이며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지키는 안전책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구적 문제들의 대책이 걸핏하면 국익 다툼으로 수렴되고 마는 상황에서 그러한 중력에 저항해 '위협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끌어당기는 힘을 창출해 강화하는 일이 요청됩니다.

바야흐로 인류는 '경종의 시대'를 마감하고 '행동의 시대' '연대의 시대'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대를 변혁하도록 힘을 한데 모으는 주축은 유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올해 유엔총회에서 '지구사회 운영(글로벌 거버넌스)과 관련한 유엔 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주제로 토의할 예정인데, 일찍이 다그 함마르시월드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단지 국가 간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눈앞에 놓인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존재가 되도록 모색했습니다.

함마르시월드 사무총장은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라는 개념을 토대로 유엔은 '살아 있는 기구'로서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망은 오늘날에도 유용합니다.

그럼 유엔이 '살아 있는 기구'로서 현대 세계의 요청에 부응하려면 어떤 '창조적 진화'를 해야 하는가.

저는 첫째도 둘째도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반석 같은 협동관계를 구축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이라는 기구의 숨결은 유엔헌장 전문(前文)에서 주어로 등장하는 '우리 민중' 특히 그 민중을 구성하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이 점에 관해 저는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가 유엔 창설 50주년에 즈음해 문제를 제기하며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종래 리더십관(觀)에 일침을 가하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은 국내와 국제무대에서 최고 수준의 인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활동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계발하려고 노력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는 NGO와 소규모 지역사회 단체를 비롯해 민간부문, 기업, 과학자, 전문가, 교육계, 언론계 그리고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과 단체가 모든 수준에서 '용기 있고 장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이 요청된다는 말입니다.

국제정치의 리더십이 결여된 경우에는 시민사회가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면 됩니다.

저도 '민중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있는 장소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 일이 리더십의 본지'라는 발상의 전환이 막힌 상황을 뚫고 마침내 지구까지 움직이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목'⁵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이 난무한 20세기의 교훈을 발판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역할을 완수하고 그 연대를 겹겹이 확대하며 21세기를 '생명존엄의 세기'로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⁵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목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이며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의 원리'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그가 남긴 “내게 지렛대와 지렛목을 주시오. 그러면 지구라도 들어올리겠소.”라는 말은 그 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여기서 비롯된 비유로 사물을 크게 움직이게 하는 급소를 가리킨다.

요.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21세기 제2의 10년을 통해 중점적으로 힘써야 할 과제인 '핵무기 금지와 폐절' '인권문화 건설'에 초점을 맞춰, 유엔이 주축이 된 '각성한 민중의 행동과 연대'로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할 세가지

먼저 지난해 5월에 열린 NPT재검토회의의 성과를 언급하며 핵무기 문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열린 회의에서는 격렬한 의견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렬된 2005년 회의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10년 만에 최종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다음 세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 ① 핵무기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보장은 폐절밖에 없다고 재확인했다.
- ② 핵무기 사용이 초래하는 괴멸적 결과를 근거로 국제인도법 준수를 요청했다.
- ③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며 핵무기금지조약을 언급했다.

이 세가지는 모두 피폭자와 NGO가 오랫동안 끊임없이 주장한 내용이며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가맹국이 가장 많은 NPT가 공식문서로 명확히 나타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합의를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협동작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헌장에 나오는 '우리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 가지에 도전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민중은 핵무기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보장은 폐절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핵보유국이 완전폐기를 전제로 군축을 신속히 추진하는 체제를 확보한다.

둘째, 우리 민중은 어느 나라든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방지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셋째, 우리 민중은 핵무기가 인류에게 괴멸적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라고 인식해

핵무기금지조약을 조기에 성립시킨다.

세가지 모두 국가에 '태도를 변경하도록 요망한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각성한 민중의 열의와 행동으로 '새로운 조류를 창출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정상회담을 정례화해 2015년까지 핵폐절의 길을 여는 교섭을

교섭에 핵비보유국과 NGO의 목소리 반영

첫째 도전의 핵심인 '완전폐기를 전제로 한 핵군축 추진'에 관해서는 모든 핵보유국이 유엔에 모여 대화하고 교섭하는 체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상(New START)은 양국 의회를 통과해 비준서 교환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감축 규모와 규제 대상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세계 핵무기의 9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만큼 감축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겠지요.

덧붙여 미국 오바마 정권이 앞으로도 계속 러시아와 사정거리가 짧은 전술핵무기 감축교섭에 나설 방침이라고 표명한 사실은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고려해 저는 신전략무기감축협상 전문(前文)에 명시된 내용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핵감축 과정을 다른 핵보유국을 포함한 '다국 간 감축교섭으로 확대'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다국 간 교섭의 결과를 군비관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제로'를 목표로 할 수 있도록 근본적 핵군축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핵군축을 대담하게 실행에 옮기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은가.

그러려면 핵무기 보유를 유지하는 전제요건이 된 '공포의 균형'으로 안전보장을 유지하려는 핵역지론적 사고방식을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시 말해 핵보유국이 핵역지론의 주술에서 벗어나려면 국가 더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안전보장이지 핵무기 보유가 아니다."라고 핵보유와 안전보장을 동일시하는 인식을 바꾸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히로시마를 방문한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적 여세를 몰아가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2년 전에 열린 '핵비확산과 핵군축에 관한 유엔안보리 정상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자고 주장한 제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도 제언 등에서 이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핵폐절을 위한 궤도를 구축하자고 주장한 만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안보리 정상회의 정례화와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으로 제한하지 말고 비핵의 길을 선택한 나라들도 토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핵문제 전문가와 NGO 대표가 의견을 표명하는 장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1996년에 만장일치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NPT 제6조는 핵보유국이 성실하게 교섭을 추진해 핵군축 교섭에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완전폐기를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권고적 의견의 심리를 주재한 모하메드 베자우이 전 재판장의 지적대로 핵보유국에 의무이행을 요청할 권리가 모든 가맹국에 있으며,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NPT 제6조를 원용할 권리가 있음을 바탕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심리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핵무기를 비난하는 증거로서 약 400만명이 서명한 '공공의 양심선언'을 제출했는데, 인류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를 교섭할 경우에는 이처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절차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요소들을 가미한 안보리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과정에서 2015년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구체적인 길을 찾아내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5년의 NPT재검토회의는 각국 정상과 시민사회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핵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핵폐절정상회의'의 의의를 담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개최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전직 국가원수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려 평화기념자료관을 시찰하고 피폭증언을 들었으며, '세계 지도자 특히 핵보유국 지도자는 히로시마를 방문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긴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제가 수년 전부터 제기한 점이며 핵보유국을 비롯한 현직 지도자들이 피폭지를 직접 보는 체험을 공유한다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방안이 더욱 확고해지지 않을까요.

피폭국 일본이 '대화' 환경 만들기에 솔선해 중동과 동북아시아 비핵화를

CTBT 발효를 위해 상호협정 체결을

둘째 도전의 핵심인 '모든 핵무기 개발의 금지와 방지'에 관해서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발효가 초점이 됩니다.

CTBT는 모든 핵폭발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96년에 채택된 이후 182개국의 서명과 153개국의 비준을 얻었습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모두 비준해야 하는데 이런 엄격한 요건 때문에 아직 미발효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발효가 실현될 경우 핵실험 금지와 더불어 세가지 의의가 있음을 지적하며 핵비보유국과 시민사회가 연대해 대상국에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① 핵무기와 관련해 NPT 미가맹국에도 적용되는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국제사회가 핵실험을 영구히 금지하는 의사를 확고히 표명함으로써 핵무기 폐절을 위한 심리적 토대가 견고해진다.
- ③ 조약의 준수상황을 지구 규모로 감시하는 체계와 사찰제도 그리고 이들을 운영하는 전문기구(CTBTO)라는 존재는 교섭개시를 준비하는 핵무기금지조약의 제도적 모델도 될 수 있으며, 이 조약에 현실감을 띠게 하는 의의를 갖는다.

어쨌든 CTBT 발효를 이끌어내려면 비준에 긍정적인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8개국의 대응이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등이 중개에 나서서 대상국이 '쌍무성(雙務性)'을 전제로 협정을 맺도록 함으로써 일정기간 내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방식을 타개책으로 제안합니다.

2년 전에 열린 CTBT 발효촉진회의에서는 '지역적 그리고 다국적 차원의 각종 조치'를 지지하는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을 바탕으로 서명하지 않은 '인도, 파키스탄'은 상호 서명협정을,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상호 비준협정을 체결하도록 모색하면 어떨까요.

또 동북아시아에서도 6자회담을 기본으로 하면서 '북한의 서명과 비준, 핵능력 포기'를 전제로 '미·중 양국의 CTBT 비준과 일정한 구역 내 핵무기 비사용'을 서약하는 협정을 검토하면 어떨까요.

지난해부터 한반도 정세는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긴박감이 더해지고 있으며 모든 외교적 노력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게다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영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려면 북한의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도 영속적으로 안정을 확보하려면 비핵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NPT 재검토회의에서 내년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중동 비핵·비대량살상무기지대를 설치하는 회의'는 설

치여부를 떠나 개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어떤 형태로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 전 단계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군비확장 중지'를 주제로 비공식 차원에서 대화를 시도해보는 일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자국의 정책이 서로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지 충분히 이해하는 일이 사태를 개선하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열릴 중동회의의 앞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폭국으로서 지금까지 CTBT 발효를 추진하는 역할을 떠맡은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위한 길을 여는 노력과 함께 중동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솔선해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SGI도 중동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핵무기 폐절을 위한 도전전(展)'을 앞으로도 계속 개최해 CTBT 조기발효와 비핵지대 확대를 위한 국제여론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CTBT 조기발효에 맞춰 '신형핵무기 개발과 질적개량 금지'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는 지난해 NPT재검토회의에서 논점으로 가장 먼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이 반대해 최종적으로 보류된 경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NPT와 CTBT의 제도적 기반을 위협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미국이 지난해 9월에 임계전핵실험을 재개하고 또 핵무기와 핵 관련시설을 근대화하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침을 제시한 일은 CTBT를 둘러싼 상황을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핵보유 5개국이 2008년에 공동성명에서 '핵실험 중지'를 유지하기로 한 서약에 이어 어떤 것도 유보하지 않는 '핵개발과 근대화 중지성명'을 발표했으면 합니다.

NPT 재검토회의에서 내린 합의를 발판으로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정해야

핵무기는 '절대악'이라는 인식이 불가결

마지막 셋째 도전의 핵심인 핵무기금지조약을 '민중의 의사가 창출한 세계법'으로 성립시켰으면 합니다.

지난해 NPT재검토회의 최종문서에는 "어떠한 핵무기 사용도 인간에게 괴멸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가맹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에서 지적인 사항을 더욱 발전시켜 '핵무기의 궁극적 비합법성'을 시사한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무기의 비인도성을 감안해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철저했을 때, 핵무기를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릇 핵무기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그 파괴력 즉 인간에게 필살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능력과 장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미치는 힘'이라는 점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종래의 범주를 뛰어넘는 무기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무기는 어느 나라가 보유하고 어떤 이유를 내세울지라도 국제인도법의 이념과 본질적으로 모순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은사 도다 제2대 회장이 반세기 전인 1957년에 발표한 '원수폭금지선언'에서 핵무기를 '절대악'이라고 자리매김한 까닭도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에 쐐기를 박고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국과 타국에 상관없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중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군국주의와 끝까지 싸운 은사의 염원은 "세계든 국가든 개인이든 '비참'이라는 글자를 쓰게 하고 싶지 않다"는 점에 집약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핵전쟁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도 가장 참혹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세계가 동서로 분단되어 상대 진영의 핵보유만을 서로 비판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정세를 보며 '생명존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불법자(佛法者)로서 어떤 이데올로기나 체제에도 치우치지 않고 세계 모든 민중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견지에서 핵무기를 규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핵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역사의 분기점이 드디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핵무기 전면금지를 위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NPT재검토회의가 최종문서에 간접적이지만 핵무기금지조약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급을 돌파구로 삼아 핵무기 폐결과 금지를 요구하는 나라들과 NGO가 연대한 '핵무기금지조약에 관한 준비회합'을 조기 발족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설령 처음부터 많은 국가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조약을 교섭하기 위한 모체를 만드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외 없이 명확히 금지하는 규범'과 '기한을 정한 일정'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내걸고 준비회합을 거듭하며 찬동하는 나라와 NGO도 더욱 규합해 교섭을 시작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도 말레이시아와 코스타리카 등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핵무기금지조약 교섭을 요구한 결의안이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과 북한을 포함한 130개국 이상이 찬성해 채택된 것처럼 합의를 도출할 토양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물론 핵무기금지조약이라는 성과를 거둬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일은 토양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압도적으로 존재감을 발휘해 '국제여론에 따른 지각변동'을 일으키면 이미 어떤 정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여론을 환기할 뿐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내걸고 그에 지지하는 민중의 압도적인 의사를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법으로 '결정화'하는 과정에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현된 법은 민중 한사람 한사람이 법 제정과 준수라는 양면에 관여했다는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의미를 지닌 국제법이 질적으로 전환되어 '세계법'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핵무기 금지와 폐결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주로 '무기가 지닌 비인도성' '핵무기 확산과 군비 확장에 따른 위험성의 고조'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즉 '비인도적이므로 없애야 한다' '위험하므로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두가지 주장은 NPT재검토회의에서 모든 가맹국이 공통으로 인식한 사항이며, 저는 인류가 '핵무기 없는 세계'로 비상하기 위해 이를 양 날개로 삼아 핵무기금지조약에 찬동하는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더욱 많은 사람이 핵무기라는 존재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시대개혁의 주체자가 되어 리

더십을 발휘하는 흐름을 만들도록 아래와 같은 '민중의 이의제기'를 연대의 기치로 삼으면 어떨까요.

첫째, 어느 나라든 어느 지도자든 많은 민중의 생명과 미래를 한순간에 앗아가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개발이나 실험으로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환경오염 등을 일으킨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존재가 끊임없이 군비 확장과 확산을 초래하는 재앙이 된 무기이므로 안전보장의 중심에 계속 두는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셋째, 핵무기 보유는 자국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궁극적으로 드러낸 모습이기에 인류의 평화적 공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상은 용인할 수 없다.

이 세가지 사항은 타자(他者)의 희생 위에 자신의 행복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넓은 의미의 인도성과 생명존엄을 지키는 인간의 안전보장을 나타냅니다. 핵무기가 왜 '절대악'인지를 부각시키는 이 관점은 우리 SGI가 지금까지 '핵무기 폐절을 위한 도전전'을 열어 주장한 바이기도 합니다.

자칫 핵무기의 위협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실감할 수 없는 면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에게 절박한 불안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일어난 비극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점을 유감스럽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벽을 부수려면 비인도성과 위협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무기로 뒤덮인 세계에서 삶을 지속하는 일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이며, 핵무기의 존재가 얼마나 크게 세계를 일그러뜨리는 구조적 폭력이 되는지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핵무기에 희생시키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자얀타 다나팔라 퍼그워시회의 회장이 "군축은 사람들의 인권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뛰어나고 인도적인 노력이다. 우리는 핵군축운동을 노예제도에 반대하고 남녀평등 그리고 어린이노동 금지를 요구하는 조직적인 운동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구에 공생하는 인간으로서 양심에 비추어 어느 나라 민중이든 핵무기의 희생이 되는 사태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각성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이 그런 신념으로 “그래서 나는 핵무기 위협 아래 이대로 살아가지 않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내 손으로 건설하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목소리 내어 ‘민중이 쌓아 올린 선택의 무게’를 핵무기금지조약의 법원(法源)으로 삼는 운동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SGI는 도다 제2대 회장이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한 지 50주년이 되는 2007년부터 ‘핵무기 폐절을 위한 민중행동 10개년’을 시작해, 각종 전시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또 국제핵전쟁방지지사 협회(IPPNW)가 추진하는 ‘핵무기폐절국제캠페인(ICAN)’에 협력하고, 국제통신사 IPS와 공동으로 핵무기에 관한 기사와 논고를 발신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창가학회(創價學會) 청년부가 227만명에게 핵무기금지조약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과 NPT재검토회의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기쁘게도 그 서명은 창가학회 대학부와 7개국 SGI 청년부가 실시한 ‘핵무기에 관한 의식조사’와 함께 젊은 세대의 의욕적인 활동으로서 유엔과 군축관계자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야흐로 그 시기는 무르익었으며 시민사회가 다 함께 행동해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SGI도 핵무기금지조약 제정을 궤도에 올리는 운동을 ‘핵무기 폐절을 위한 민중행동 10개년’의 중심에 두고 전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2015년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 청년을 중심으로 한해 또 한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조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청년의 무한한 열의와 힘으로 ‘인권문화’ 구축에 도전을!

하딩 박사가 제기한 중요한 문제

이어서 우리가 21세기 제2의 10년에 중점적으로 도전해야 할 다음 과제로서 인권문화 건설에 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문화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개년’(1995~2004년)을 계기로 널리 알려진 말이며, 한사람 한사람이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존엄을 끝까지 지키는 삶의 자세를 사회 전체에 문화적 기풍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디 유엔의 이러한 구상은 NGO의 활발한 활동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 근거에는 인권의 법제도적 보장을 어떻게 확립하고, 침해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구제하느냐는 관점과 더불어 평소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토양을 다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마틴 루터 킹 박사의 맹우로서 오랫동안 인권운동에 몸바친 역사학자 빈센트 하딩 박사와 대담하고 있습니다.

이 대담에서 박사가 제기한 말은 인권문화 건설을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박사는 '공민권운동'이라는 말로는 그동안 펼친 운동을 충분히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언급한 다음, 그 까닭을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하며 공민권운동을 과거 역사로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공민권운동을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면, 다음 세대는 자신이 이어받은 것보다 더 민주주의를 확대시킬 책무가 있다고 자각할 것입니다. 이 책무는 또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로 제정되었다고 해서 인권이 존귀한 것은 아니다. 법률을 쟁취하는 투쟁을 정신적 근거로 삼아 그 정신을 계승해 운동을 더욱 확대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인권은 빛난다.'라는 사고는 생명존엄의 사상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핵심이고, 이 점은 불법(佛法)이 "법은 스스로 흥통(弘通)되지 않는다."(어서 856쪽)라는 관점을 강조한 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석존이 "태생을 추궁하지 마라. 행동을 추궁하라. 불은 실로 온갖 장작에서 일어난다."라고 설하듯 불법은 어떤 사람에게나 가장 존귀한 생명이 내재하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생명을 빛내는 열쇠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동이라고 설합니다. 게다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은 행복하여라, 안온하여라, 안락하여라."고 설하듯 불법은 자타 함께하는 행복과 사회 안온을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촉구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SGI는 유엔 산하의 NGO로서 인간의 내적 변혁을 중시하는 불법사상을 바탕으로 인권교육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993년 6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 앞서 그해 4월에 도쿄 유엔대학에서 개막한 '현대세계의 인권전'은 그 대표적 활동이며,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개년'이 끝나는 2004년까지 세계 4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민중 차원에서 의식계발을 추진했습니다. 또 저도 2001년 8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 반(反)인종주의·차별철폐세계회의(WCAR)에 보낸 메시지 등에서 유엔이 추진하는 인권교육을 위한 구상을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도록 주장했습니다.

인권교육과 연수에 관한 선언채택을

그런 만큼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개년'의 구상을 계승해 2005년에 시작한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 첫머리에서 인권문화 건설을 강조하고,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신해 2006년 6월에 활동을 시작한 인권이사회의 주요임무 중 하나인 '인권교육과 학습추진'을 내건 일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구체적 방안으로 인권이사회가 스위스와 모로코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7년 9월에 '인권교육과 연수에 관한 유엔선언'의 초안을 결정해, 올 가을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교육의 국제기준을 처음으로 정하는 선언이 채택되는 일을 계기로 모든 나라에서 인권문화를 더욱 자각하고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전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NGO와 협동해 활동을 추진할 '유엔인권교육계획'을 창설해야

그래서 저는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세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유엔조직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인권이사회가 '인권교육과 연수에 관한 유엔선언' 초안을 작업하고 있지만, 유엔총회에서 더욱 많은 나라의 찬동을 얻어 채택되고 세계 각지에서 실시하려면 시민사회의 일관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도 전문적인 국제기구가 없으므로 유엔의 구상을 앞으로 계속 충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NGO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는 유엔NGO회의(CONGO) 하부조직으로 제네바에서 활동한 '인권교육학습 NGO작업반'을 중심으로 유엔의 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권교육학습NGO작업반이 2009년 3월에 국제적 네트워크단체인 인권교육연합과 협

력해 NGO365단체의 연명으로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동제안은 높은 평가를 받고 많은 이사회 관계자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인권교육학습NGO작업반 의장을 맡은 SGI는 인권교육연합과 공동으로 인권교육의 구체적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그 중요성을 호소하는 DVD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교육을 추진하거나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기존 NGO네트워크나 단체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평의회'를 발족하고 인권이사회나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와 제휴하면서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국제적 흐름을 넓히고 강화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유엔과 시민사회가 협동작업의 실적을 쌓으며 장래를 전망해 '유엔인권교육계획'(가칭)과 같은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일도 검토하면 어떨까요. 운영과 재정 기반을 더욱 충실히 함과 더불어 각국 차원에서 유엔과 정부 그리고 NGO가 협의해 세계프로그램과 유엔선언을 착실히 이행하는 기구를 정비하며 인권문화가 지구상 곳곳에서 꽃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적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유엔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를 '국제 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청소년들이 지닌 에너지와 창조성 그리고 자발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봐도 간디와 킹 박사가 20대에 일어난 것처럼 청년의 열의와 힘이 많은 인권투쟁의 길을 열었습니다. 냉엄한 사회현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청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킹 박사는 만년에 "바야흐로 개인이 사회에 진정으로 참가하지 않고 사회에 책임을 느끼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는 공동화합니다."라는 말을 남겨 청년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말은 인권문화 건설에도 해당하며 앞서 하딩 박사가 강조한 대로 인권을 짊어진 사람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흐름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대 정세를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덧붙여 국가라는 틀을 초월한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고 인적교류도 포함한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인권교육'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유럽평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적 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유럽에서는 시민을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특히 행동하는 젊은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고 장

려합니다.

이렇게 인권교육을 위한 연대를 세계 다른 지역에도 NGO 등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1987년에 발표한 제언에서 '유엔세계시민교육 10개년'을 실시해 환경, 개발, 평화, 인권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주축으로 21세기를 짚어질 글로벌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GI는 이 주장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유엔이 1995년부터 시작한 인권교육의 구상과 2000년에 시작한 '평화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다른 NGO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개년' 제정을 제안하고 2005년에 이 '10개년'이 시작된 뒤로는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평화문화'를 전 세계에 뿌리내리게 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힘차게 전개함과 아울러 인권문화에 관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인적교류 등 실제 체험을 중시하며 '상호 공통성을 찾아내고 각자의 다양성을 살리는 마음'을 배양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인권을 짚어질 청년이 속속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다각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구축을 위해 지금 종교가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지식에 그치지 않고 맹세로 승화

셋째, '인권문화 건설을 위한 종교간 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인권은 지식으로 배우기만 해서는 사람들 마음에 정착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정리한 초중고교용 안내책자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르쳤다고 해도 문서나 역사만으로는 교실에 인권을 뿌리내리게 하지 못합니다."

"(인권에 관한) 문서의 중요성을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면, 인권에 실생활의 경험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학생 자신이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들테면 어린이들이 주변에서 집단괴롭힘을 목격한 경우 거기에 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지하는 쪽에 설 수 있는가. 그렇게 나날이 현실에 맞서 격투하지 않으면 인권감각이 연마될 리 없음은 비단 학교교육에만 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가슴 아파하는 마음'과 같은 양심이 그 초석이 되고,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 바람직한 자신'이고 싶어하는 신념이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교는 본디 이런 에토스(도덕적 기풍)를 기르는 인간정신의 대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로 아무리 인권을 보장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외재적 규율이나 타율적 도덕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들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비폭력은 마음 먹은 대로 입거나 벗을 수 있는 옷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간디의 신념처럼 '만일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미 내가 아니다'라는 맹세로까지 승화(昇華)했을 때, 비로소 인권규범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의 원천(源泉)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종교만이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며,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⁶를 하듯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삶의 자세가 앞으로도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종교학자 폴 틸리히의 지적처럼 종교는 정신을 뒤흔드는 근원적 물음인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의미에 대한 지향성(志向性)과 깊은 부분에서 관계되는 만큼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종교적 신조에 따라 '더 좋은 삶'을 지향한다는 의미부여를 통해 틸리히가 말한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을 초월해 창조하는 힘'을 발현하는 길을 종교가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경보살이라는 이름에 담긴 정신

⁶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고대 그리스의 의사 조합이 제창한 윤리규범이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의 견해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며 새롭게 가입한 멤버는 반드시 읽고 그 규범대로 행동하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각국을 중심으로 의학교육에도 도입해 문장을 개정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내용이 다른 선서가 존재하지만, 그 저류에 흐르는 정신은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SGI운동은 한사람 한사람이 내면을 변혁해 자타 함께 '더 좋은 삶'을 명백히 나타내는 일을 목표로 합니다.

인권문화라는 문맥에 비춰 말하면, 인권을 배우고 의식을 연마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한사람 한사람이 '인권의 체현자'로서 사회에 파동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인권교육이 완결된다는 신념 아래 풀뿌리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불법의 진수인 법화경에서는 그 모범이 되는 불경보살(不輕菩薩)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불경보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매우 존귀한 생명을 갖추고 있다는 신념에 따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깊이 그대들을 존경하며, 감히 경멸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하며 예배하는 실천을 관철했습니다. 그러나 흥미함이 깊어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악구매리를 당하고 야유를 받을 뿐 아니라 때로는 몽둥이로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하는 실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법화경이 중국에 전해져 구마라습이 번역할 때, 불경보살의 이름을 '항상 사람을 경멸하지 않은 보살'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이름에 담긴 정신은 또한 우리 창가학회가 창립 이래 80년 동안 실천한 인권투쟁의 혼입니다.

창가학회는 초창기부터 '가난뱅이와 병자의 모임'이라고 때로는 야유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 말을 가장 큰 영예로 삼아 고뇌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불법의 근본정신이라는 종교적 신조를 불태우며, 착실한 대화를 철저히 전개해 한사람 한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법화경은 그 밖에도 보현보살, 약왕보살, 묘음보살, 관세음보살 등 여러 보살이 자기 특성을 살려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설합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현대사회에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누구든지 자기 특성을 최대한 살려 '인권'과 '인도'를 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함께 성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인권분야와 관련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는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고무할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주축으로 종교계가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토론하면 어떨까요.

일찍이 저는 하버드대학교 강연(1993년 9월, '21세기 문명과 대승불교')에서 "과연 종교를 갖는 일

이 인간을 강하게 하는지 약하게 하는지,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 현명하게 하는지 어리석게 하는지"를 신랄히 묻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하며 스스로 경계하는 뜻으로 경종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초대 회장이 제창한 '인도적 경쟁' 즉 여러 종교가 인권문화 건설이라는 공통 목표에 서서 대화를 거듭하고 서로의 원점과 역사를 직시하며 인권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출할지를 좋은 의미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역사의 정도(正道)를 걷는 기쁨이 민중의 힘을 창출하는 원천

시대의 획을 긋는 도전을 성취시키는 열쇠

이상, '핵무기 금지와 폐절' 그리고 '인권문화 건설'을 중심으로 논했는데, 자신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 우리 민중 한사람 한사람의 행동이 인류사에 획을 긋는 장대한 도전으로 직결된다는 긍지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 저는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행동하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지구연구소 소장이 과거 2세기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며 노예제도와 식민주의 그리고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를 종식시킨 도전이 성공한 요인을 분석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도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확대하기 위해 공헌한 세대는 있었다. 그런 도전을 가능케 한 것은 노력, 대화, 인내 그리고 역사의 정도를 걷는다는 강한 기쁨이었다."

그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마지막에 언급한 '역사의 정도를 걷는다는 강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나날이 펼치는 행동이나 대화가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는 확신과 기쁨이 바로 민중 자신 속에서 미증유의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SGI는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주역은 민중'이라는 신념과 '인간정신의 변혁이 만들어내는 힘은 무한하다'는 확신을 더욱 불태워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거듭 확대하며 전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1. 《세계를 알기 위한 작은 철학》, 요시자와 히로유키 옮김, 도쿠마서점
2. 〈인간교육을 향한 새로운 조류〉 월간 《등대》 2010년 11월호
3. 《앙리 베르그송》, 장켈레비치 저, 아베 가즈토모·구와타 노리아키 옮김, 신호론
4. 《사유와 운동》, 앙리 베르그송 저, 고노 요이치 옮김, 이와나미서점
5. 〈의식과 생명〉, 이케베 요시노리 옮김, 《베르그송》 중앙공론사
6. 〈시간과 자유의지〉, 이케베 요시노리 옮김, 《베르그송》 중앙공론사
7. 〈물질과 기억〉, 이케베 요시노리 옮김, 《베르그송》 중앙공론사
8. 《창조적 진화》, 이케베 요시노리 옮김, 《베르그송》 중앙공론사
9.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모리구치 미쓰오 옮김, 《베르그송》 중앙공론사
10. 《인도의 발견》, 쓰지 나오시로·이즈카 고지·로야마 요시로 옮김, 이와나미서점
11. 《중론》, 가지야마 유이치 옮김
12. 《현대일본문학전집 42 고바야시 히데오집》, 지쿠마쇼보
13. 《인류의 성서》, 쥘 미슐레 저, 오노 가즈미치 옮김, 후지와라서점
14. 《현재와 미래》, 칼 구스타프 융 저, 마쓰시로 요이치 옮김, 헤이본사
15. 《지구리더십》, 교토포럼 옮김·편집, 일본방송출판협회
16. 《핵 비확산에서 핵 폐절로》, 우라타 겐지 편저, 헌법학사/일본평론사
17. 《도다 조세이 전집 제3권》
18. 〈희망의 교육 평화의 행진〉, 월간 〈제삼문명〉 2010년 8월호
19. 《붓다의 말씀》, 나카무라 하지메 옮김, 이와나미서점
20. 《양심의 트럼펫》, 나카지마 가즈코 옮김, 미스즈쇼보
21. 〈ABC 인권을 가르친다〉, 유엔홍보센터 홈페이지
22. 《나의 비폭력 1》, 모리모토 다쓰오 옮김, 미스즈쇼보

23. 《존재의 용기》, 폴 틸리히 저, 오키 히데오 옮김, 헤이본사
24. 《빈곤의 종말》, 제프리 삭스 저, 스즈키 지카라·노나카 구니코 옮김, 하야가와쇼보